

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

NEW
순복음Life
제41호

발행일 : 2019. 9. 8.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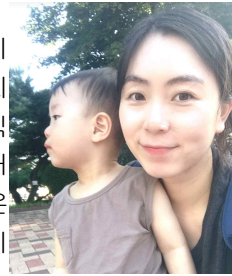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안녕하세요~ 순복음 성도 여러분!

민이룸 민하울의 엄마 김소현 권찰입니다.

다시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벌써 결혼한지는 4년째,, 두 번의 출산을 겪고 나니 저도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 받은 은혜가 깊고 깊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심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한 가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 일찍 태극기를 아이들과 함께 게양하고 시댁 아버님 생신 겸 가족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이 어색하신지 머쓱해 하시는 아버님 모습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어머님 표정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시댁은 어렵고도 먼 존재이고 싶은 곳이지 않나요? 저도 처음엔 모든 상황들이 다 불편하게만 느껴지고 말하는 것,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그날은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에 "그래, 자주 찾아뵙고, 진심을 보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질 때 어머님께서 쌀을 주셨는데 집에 돌아와 정리하고, 아이들 재우고 11시쯤 되어 쌀자루를 보는데.. 순간 "정리를 할까,,말까,, 이 더위에 쌀이 저기 있으면 벌레 생기고 상하겠지..."라는 마음에 통에 담아 냉장 보관하려고 쌀을 옮기는 과정에 보니 좋은 쌀도 있지만 쪽정이라도 간간이 있었습니다. 쌀을 펼쳐놓고 앉아서 그 밤에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알곡과 쪽정이를 고르듯... 피곤한 하루였는데 오히려 단순작업을 하니 머리가 정돈되고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헛된 수고는 없구나!"

엄마께서도 늘 보면 쌀이나 콩 고르고 계셨었는데 그때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얼마나 된다고"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것으로만 먹이고 싶어 하는 부모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셨구나,," 순간 먹먹해지더라고요.. 철부지였는데,, 부모님께는 바라기만 했었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마음들이 부끄러워지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고르면서 찬양을 흥얼거렸었는데 "아! 맞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나눠

보자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 랑 하 시 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
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빼앗하게만보고 늘 불평불만이었던 제가 가정을
세우고 아이를 낳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혼
자 훌쩍거리면서 계속 쌀을 골랐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 물려주자"

스스로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났으면,,... 어떻게 하면 아이와 소통하는
부모가 될까? 저희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평소 모습에서요. "더 노력해야지."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
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심혈을 기울여 골랐던 쌀들을 성미 해 놓고
마저 저희 것 골라서 냉장고에 넣어두니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오늘
주신 이 감동과 마음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서 어머님께도 꼭 표현해야지 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부끄럽지만 나누고 마
치려합니다.

제가 "어머니, 쌀 주셔서 감사해요~ 여름이라 통에 넣어 보관하러 쪽정이
고르는 중에 오늘 같이 사진 찍으면서 시부모님과 또 식구들 행복해 하는
모습 보니 감사하더라고요! 또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하는 부모님 생각도
현신도 헛된 수고는 없구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었네
요. 늘 쌀이며 반찬이며 물질적으로 챙겨주시는데 그에 반해 효도하지 못해
죄송스러워요. 아이 낳고 철드나 봐요^^ 감사한 마음 들 때, 감동이 올 때
표현하고 싶어 톡 남겨드려요" 라고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에 "잠도 안자고 고생하니? 고맙다~ 손자 키우느라고 힘든
어미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늘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들 보면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이다. 오늘도 손자들과
씨름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길 기도한다"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적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빼먹거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했었지만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시고 말씀으로 늘 양육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승권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박선진 집사님 알아가기



1. 집사님의 어린시절을 알려 주세요.

1남 2녀 중 2녀로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와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지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위로 오빠는 오빠라 대접을 받았고 아래로 동생은 어리다고 대접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간에 낳아서 집안에 허드렛일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정년퇴직하시고 엄마가 직장에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밥을 차리고 오빠와 동생 그리고 제거까지 도시락 5개를 준비해야 했으니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놓아주지 않아서 결국 결혼 후에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은 대부분 어렵게 어린 시절을 사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학교에 다니는 어찌보면 소녀 가장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2. 남편 한동수 성도님과 러브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러브스토리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구요~ 남편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 워낙 짧은 시간이었고 많은 대화가 오고가지 않아서 제 짝이 아닌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다시 연락이 닿았고 몇 번 만나다보니 이 사람이 좋아지더라구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남편은 정말 성실하며 착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좋아서 사랑하게 됐나봐요. 결혼하면서 전주를 처음으로 떠나게 되었고 당진에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 신혼을 보냈습니다.

3. 두 분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 예연이와 화영이가 어떻게 살아가길 기도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부모들이 같을 마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귀영화와 명예 권세는 그저 옵션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실수하지 않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중심적인 삶이 인생에 기본이 되길 원합니다. 나이 먹으며 자립하여 나갈 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 하지 않길 원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딸들이 되길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4.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지 벌써 15년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시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신앙으로 이루었다며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말이지 앞으로는 더더욱 열심히 신앙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겠습니다.

5. 집사님의 웃는 얼굴은 천만불짜리입니다.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웃으시며 푸근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ㅋㅋㅋ 저도 화 많이 냅니다. 못 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화를 덜 낸다고 생각하신다면 비결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성품이지 싶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겉으로 내색하며 흥분하기보다 혼자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이 있긴 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 털어놓고 위로받습니다.

6.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되셨습니다. 그 일이 쉽지않은 않을텐데요~~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나이가 30대 정도라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텐데 40의 끝자락에 선 지금 제게 이 일은 정말 버겁습니다.

7.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어린이들이 귀찮거나 밉지는 않으신지요?

아이들은 정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해야 하는 행정적인 일들과 학부모 상담이 몸에 모든 진을 다 빼 놓을 정도입니다.

8. 맥추절 연극 때 집사님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주님을 위한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새벽기도를 하시겠다는 대사였습니다. 정말 도전해 볼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마음은 정말정말정말 간절한데..... 왜 안될까요???

9.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집사님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신지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게 속한 모든 것, 특히 내 몸의 소생까지 축복을 약속하셨기에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10. 요즘 우리들 나이가 들어가니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펍이나 눈에 보입니다. 만약 집사님이 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남은 삶을 어떻게 정리하실건가요?

정말이지 가끔 질문과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결론을 내려 본 적은 없습니다. 가족이나 성도 등 지인들과의 관계를 예쁘게 정리하고 천국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추하지 않은 모습으로 곱게 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듯 합니다.

11.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딱히 힘들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저 늘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았지 특정한 어떤 일 때문에 막~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 반대로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어요?

제가 28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도 물론 좋았지만 결혼 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제가 살림을 거의 맡아서 하다시피 하다가 집을 나오니 너무 좋았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결혼 할 때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했거든요. 결혼하면서 집도 나오고 직장도 그만두니 진짜 좋았습니다. 가만 보니 놀고 먹을때가 최고로 좋았었네요 ㅋㅋㅋ

13. 사르밧 여인은 아들과 먹을 수 있는 한끼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집사님에게 딱 한사람만 먹을 수 있는 양식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예언이와 화영이, 그리고 집사님 중 누가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 콩 한알도 나눠 먹는다고 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나눠 먹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이들과 저를 위해 양보 해 준다면 저도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먹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저의 육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4. 집사님의 성품 중 버리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버리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 이러한 모습이 싫습니다.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며 할 말 다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변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15. 내년이면 40대를 마치고 이제 50에 접어들지요? 50대에 접어드는 소감이 있으신지요?

세월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며 거스를 수 없는 게 세월이니 그저 세월속에 스며들어야지요. 젊잖고 예쁘게 나이 먹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하고 신경써서 저의 노후가 누구보다 강건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집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리듬과 가사가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이 좋다고 고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고요해지며 근심걱정이 사라집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 해 주세요.

그동안 직장 생활한다고 예배에 많이 소홀했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잘 지켜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예배나 그 밖에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먹었을 때는 권사님이 되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에 감사하!~!

유초등부 6학년 어린이들 (박준희 백승민 이영광 최소은 장예은 조아정)



지난 7월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보낸 6학년 어린이들을 칭찬합니다. 마지막이란 단어를 인지했는지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이고 의젓한 언니, 오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제일 커서 큰 오빠 같은 준희, 축구 선수가 꿈인 승민이, 수줍음을 잘 타는 영광이, 새침떼기 같은 소은이, 동생들과 잘 놀아주는 예은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 잘 적응해 가고 있는 새 친구 아정이 까지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당진순복음교회의 풍성한 열매의 묘목들입니다. 곧 학생회에 올라가고 또 청년이 되겠지요. 올바른 선배 언니, 오빠의 신앙을 닮아가며 예쁜 일꾼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무더웠던 여름, 헌신예배를 준비하며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 해 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기도>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오니
날마다 함께하시는 주님의 소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심을 떠올리며 나의 삶을 뒤 돌아 봅니다.
목심과 교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말과 행함이 주님을 근심케 하였던
저로 얼룩진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연약함 가득한 제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밝은 빛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어
악하고 악한 세대에
그리스도의 아늑다운 향기를 퍼뜨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봅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향격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입재 가운데
부흥 성장케 하신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말씀으로 세워 나갈 때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널리 좋은 소문이 가득 넘치는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교회로
더 굳건히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성도들의 순종과
거룩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수현 집사

<주일학교소식>

어느덧 무더운 8월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제법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다가온 9월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까지 설레이게 하였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간 유초등부는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특히 첫째, 둘째, 셋째 주는 헌신예배를 준비하느라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성전에 모여 열심히 하나님의 작은 용사들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연극도 연습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보람있게 보내었기에 더욱 뜻깊은 한 달이었습니다. 2019년 주일학교 헌신예배를 여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지요?

1부 예배 때는 소리엘 찬양대가 ‘쥐락펴락 하시는 분’, ‘우린 크리스찬’이라는 두 곡을 찬양했는데요. 지도해 주신 유진경 선생님이 선곡하신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라는 찬양은 톡톡튀는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었습니다. 1부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의 많은 프로그램을 2부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부터 같이 살펴보실까요?



맨 처음 순서로는 김은희 선생님의 지도로 저학년 친구들이 율동을 준비했
 었죠. 제목은 ‘GO!GO!GO!’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표현한
 율동입니다. 김지아 어린이의 큰 목소리와 새로운 친구들이 열심히 율동 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예은 어린이가 준비한 편지
 낭독이었습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앞으로의 삶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편지의 내용처럼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겁니다. 이번엔 ‘진짜
 크리스찬’을 율동해 준 고학년 친구들의 순서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투입된
 장원준 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셨는데요. 첫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잘 소통하며 연습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만 좋은 호흡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학년 친구들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찬양이 있었는데요. 김은희 선생
 님께서 아직 한글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서 선택한
 ‘주는 나의 목자’인데요. 선생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 완벽한 하모
 니를 이루며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
 다. 전도사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대본을 가지
 고 준비한 연극은 다니엘 유초등부의 이름에
 맞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습
 니다. 2주간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 아침 일
 짝 또는 밤늦게까지 모여 연습을 했는데요.



아이들끼리도 더 돈독해지고 완벽한 연극을 만들 수 있는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나와 함께 율동하는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김성령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플래시몹은 단순한 율동이 아니라 중간에 구원열차를 하며 성전을 돌았던 퍼포먼스는 어린이들이 친구 또는 가족들을 전도해 구원열차에 타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올 한해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유치부와 유초등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채워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헌신예배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외에도 상반기 동안 활동한 것을 영상으로 보기도하고, 성도님들의 관심으로 잘 마무리했던 여름성경학교의 활동들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주에는 ‘빙수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뽑기를 통해 조리퐁빙수, 팔빙수, 오레오빙수, 복숭아빙수 팀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갈아준 우유빙수위에 각 팀에게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빙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고 보니 보양직도 하고 먹음직도한 빙수들이 탄생했습니다. 각 팀당 3개의 빙수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제출용, 즉 평가용으로 다른 하나는 팀원끼리 먹을 것, 마지막으로 하나는 다른 팀원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다른 팀의 것을 먹고 맛보았습니다.



혹시 헌신예배를 보지 못하신 분이나 헌신예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당진순복음교회 미디어팀’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이 올라가있으니 많이 봐주세요!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릴레이

박순옥 성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은 죄악으로만 살아가던 저를 구원해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죄를 죄인지도 모르며 헛된 삶을 살
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아가니 정말 다행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 또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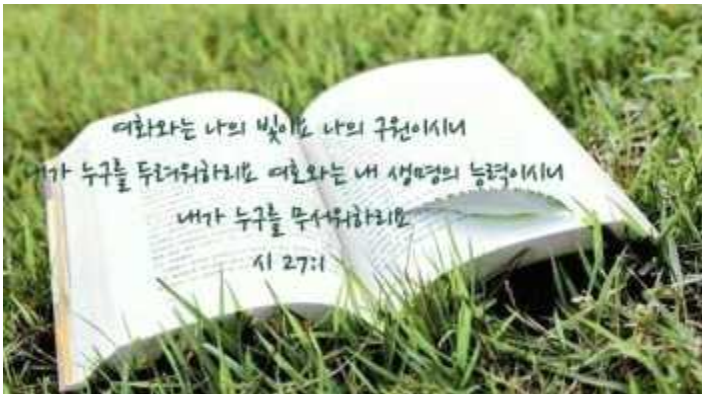
그래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니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이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각과 입술에 고백이 주님께 집중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주자 : 장명희 집사님



성경 숨은그림찾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 떼에
들어 보내소서 한대 허락하신지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
어 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사하거늘
[마태복음 8장 28절 ~ 34절]

[숨은그림: 커피잔, 물병, 땅콩, 사람 옆 얼굴, 거북이]



세상에 믿음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외롭고....
허탈해~!!



멜리서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앞에 계신 그 분 만이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한 빛 이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주일학교 헌신예배







역시
젊은이의
손길



아버지들
사진
전송안됨.

거의 다 여자사진



남
는
사
건
진
역
시



딸들 덕분에
엄마들 인생샷
수백개 건짐.





학생&청년 연합



**찬양과 경배시간에
절대 빠질수 없는
축복타임**



**무적권 선생님들
무적권 사랑해요
무적권 축복해요**

밤 안먹어도 든든

무한축복+1

무한사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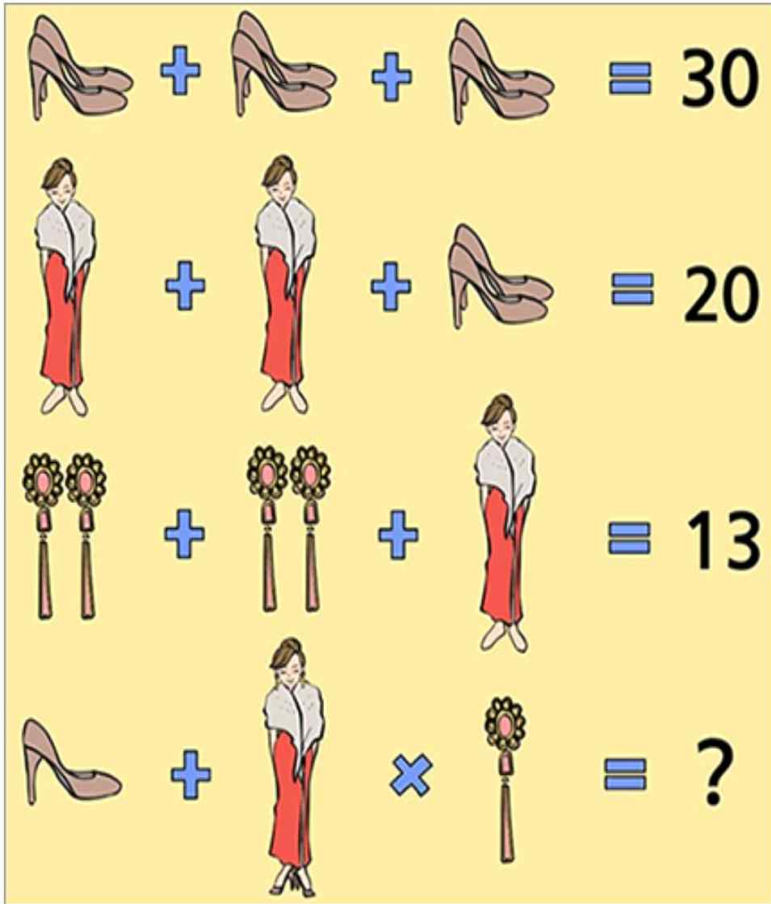
무한감사+1

-선생님들일동-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산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림을 유심히 보세요 ^^



힌트)
구두는 2개가 한 세트
귀걸이도 2개가 한 세트
사모님을 유심히 살펴세요 ㅎㅎ

형제는 가로 자매는 세로 4

1)		2)			7)		11)	10)
				6)		8)		
		5)				9)		
3)	4)							
				16)	17)		19)	
12)								
				18)				20)
13)		14)						
		15)					21)	

가로열쇠

- 1) 남 왕국 유다의 수도.
- 3) 사랑의 노래
- 5) 그리스도를 히브리말로....(요1:41)
- 6) 살몬은 라합에게서 ○○○를 낳고 ○○○는 롯에게서... (마1)
- 9) 엘리히의 제사장 시대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죠.
(삼상5)
- 11) 열국의 어머니.(창17:16)
- 12) 예수님 재림의 날은 인류의 ○○○○.
- 13)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민6)

- 15) 우리는 하나님의 ○○.
- 18)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던 ○○○○○죽속 여인의 신앙고백 (막7)
- 19)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할 때 입은 상징적인 의복. (느9:1)
- 21)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18:12)

세로열쇠

- 1) 눈물의 선지자
- 2) 부활후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자 중 하나.(막16:1~2)
- 4) 곡식은 곳간에 ○○○는 묶어서 불에....(마13:30)
- 6) 우리의 아들 (막 3:17)
- 7)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빛깔 무지개....
- 8) 야곱의 열 번째 아들. 레아의 마지막 소생. (창30:20)
- 10) 고센 북부의 도시로 출애굽의 출발점.(출 12:37)
- 12)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이곳의 이름을....
 (창 32:2)
- 14) 주의 ○○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시 63)
- 17)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 (마10:3)
- 19)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고 죽으며 이름을 이렇게 불렀죠.
 (창35:18)
- 20) 레위의 아들은 ○○○과 그핫과 프라리.(민 3:17)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이혼

가정과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의 이혼율은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2:24에 기록된 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즉 결혼이란 한 쌍의 남녀 사이에 맺어지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드시고 보증하셨다. 그들은 공적으로 부모에게서 떠나 자립하여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그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와와 짝을 맺어 주셨는데 이것이 인류의 첫 결혼이다. 결혼의 가장 큰 의미는 '두 몸이 한 몸으로'되는 데 있다 (창2:24). 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결혼을 정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창1:28)는 명령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서로가 상대 배우자의 '돕는 배필'로서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돕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내어줌으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혼의 의도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랑과 헌신보다는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혼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현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로 인한 이혼이 가져오는 상처는 점점 극심해가고 있다. 이에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살펴보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정하신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이혼을 미워하신다(말2:16). 신명기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은 이혼한 부부가 그 이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하는 것을 금하며, 결코 이혼을 권

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도리어 모세는 당시에 변덕스럽고 횡포를 부리는 남편에게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제도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결혼의 영속성에 대해 강조하셨고, 이혼이란 단지 인간의 죄에 대한 임시적인 인정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모세가 당시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이혼증서 제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버림받는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혼 제도에 반대하셨다. 바울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 첫째로는 아내가 음행을 한 경우이다. 이때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예수는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이혼하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갈리기를 허락하셨다. 그렇지만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윤리·도덕적으로 이러한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키 위해 이혼을 배경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잇따르는 이혼과 재혼의 모습들을 보며 이혼이 죄가 아니라는 암묵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휩쓸려 우리 믿는 자들마저 같은 마음을 품을까 염려되는 게 사실이다. 더욱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삶에 철저히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한다.

(숫자 퀴즈 정답)

구두 10점, 사모님 5점, 귀걸이 4점

정답 ? = 5 + (5+4+10)X2=43

=> 구두한쪽 5 + (사모님 5 + 사모님 귀걸이 양쪽 4
+ 사모님 구두 양쪽 10)X 귀걸이 한쪽 2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격한 축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타이타닉호 생존 부선장이 공개한 침몰 뒤에 감춰진 이야기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오랜 세월 침묵 끝에 드디어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이등 항해사 찰스·래히틀러 씨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래는 찰스·래히틀러 씨의 타이타닉호 참사의 자세한 사정을 담은 회고록 중 일부입니다.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 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 명 없었습니다. 래히틀러는 ‘살아 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갑판 위에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세요! 여보!”라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애스터 IV(당시 세계 최고 부자) 씨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가 한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애스터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자, 애스터 씨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애스터 씨의 시신을 생존자 수색 중이던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아타닉호 열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이브닝드레스로 갈아입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체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 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यो.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यो.”

미국 메이시(Macy’s)백화점 창업자 슈트라우스씨는 세계 2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 로잘리 씨를 구명보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아내 로잘리 씨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라며 남편을 두고 배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원이 67세 슈트라우스씨께 “누구도 어르신인 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구명정 탑승을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트라우스 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라며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3세의 아내 로잘리 씨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의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에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프랑스 상인 와트열 씨는 두 아이를 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배 위에 남아 아이들과 작별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의 신문사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주어 어머니와는 재회할 수 있었지만, 배에 남겨진 아버지와는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더파스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 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보트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재가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스 로잔의 생존자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 신문가 험스테드, 육군 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루오부어 등 사회의 저명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이등 항해사 래히틀러 외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호소노 마사부미(細野 正文: 1870년~1939년)는 타이타닉에 탑승했던 유일한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메이지(明治)시대의 철도 관료로 러시아에서 2년간의 유학을 끝내고 지인이 있는 영국을 방문 후 뉴욕으로 가기위해 타이타닉에 탑승하게 됩니다.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한 그때, 승무원의 외침에 깨어나 구명조끼를 받아든 그는 구명정 근처까지 갔다가 보트가 부족한 것을 보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눈앞의 구명정에 두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구조 후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행운의 일본인'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일한 일본인이라는 것이 불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 후 도쿄에서 발행된 잡지에 그의 이야기가 실리면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잡지에는 영국의 윤리교수 로렌스 비슬리(Lawrence Beasley)가 "사람들을 밀쳐내고 보트에 탄 비열한 일본인이 있었다" 라는 증언이 실려 있었습니다. "창피한 일본인" 이라는 비난과 함께 그는 직장을 잃었고 언론에 의해 오랫동안 겹쟁이로 비난받습니다. '일본 남자라면 명예롭게 죽어서 돌아와야 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소노는 평생 비난속에 살면서도 변명 한마디 없이 자식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꾼이라서 살아남은 사람 찰스 존 조그힌(Charles John Joughin)은 타이타닉의 제빵사였습니다. 배가 빙산에 충돌했을 때 취침 중이던 조그힌은 급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구명정을 내리는 작업에 동참하였고 승객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또한 수십 개의 의자를 바다로 집어던져 사람들이 잡고 떠 있을 수 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헌신적인 행동 덕에 구명정에 탑승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를 바란다면 그는 그 기회를 사양합니다. 이제 죽음을 직감한 그는 '술이나 먹자' 라는 결심을 하고는 술을 꺼내 퍼마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구명정이 떠나고 결국 타이타닉은 침몰했습니다. 조그힌은 거의 두 시간동안 차가운 바다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술 덕분에 거의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물 위에 떠있는 생존한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온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실은 머리가 물에 젖지 않아 저체온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술이 나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1번 연산사 존·필립스는 여전히 전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White Star Line는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웁겨온 글

[출처] 타이타닉호 생존 부선장이 공개한 침몰 뒤에 감춰진 이야기
작성자 / 민강

유머

어느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 주시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남자는 처음에 두려웠으나 죽지 않게 되자 몇 번 더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자,
옛날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떠올랐다.

이 남자는 무서웠지만 ‘나 혼자도 아니고 백여 명이나 함께 배를 탔으니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배를 가라앉히진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 하셨다.

“내가 너 같은 놈 백명 모으느라 3년이 걸렸다.” ㅎㅎㅎ

형제는 가로 자매는 세로 4 (정답)

예	루	살	렘		노		사	라
레		로		보	아	스		암
미		메	시	아		불	레	셋
아	가			너		론		
	라			게	바		베	옷
마	지	막	날		돌		노	
하				수	로	보	니	게
나	실	인			매			르
임		자	녀				겸	손

다말(Tamar)

뜻 : 종려나무

◇ 엘의 아내-- 유다의 끊어진 혈맥 이은 지혜의 여인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이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자연히 다말은 무자한 청춘과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장자가 슬하에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 차자로 하여금 아들을 얻게 하는 고대 관혼법에 따라 유다는 시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의 아들을 얻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난은 다말에게서 자식이 나면 호적상 죽은 형의 아들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녀와의 정사를 회피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오난 역시 죽게 되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셋째 아들 셀라에게 기대를 걸었으나 셀라 역시 장성한 후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다말을 꺼려했다.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은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날 시아버지 유다가 딤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가장, 시아버지를 유인했다. 이로 인하여 다말이 임신한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유다는 자신을 유혹한 자부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했다. 다말은 지혜로운 여인인지라 정을 통할 때 유다에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받아 간직했다가 이것을 제시함으로 유인한 자는 자부편이 아니라 시아버지 편임을 밝혔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 하였음이라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 하였더라](창 3 8:26)

창세기 기자는 왜 이러한 수치스러운 불륜의 사건을 에서의 족보와 비교 하면서 수록 해 놓았을까.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 역시 무슨 이유로 이러한 불륜의 여인을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족보에 삼입시켜 놓았던 말인가. 물론 다말의 행위는 영원히 불문에 붙여야 할 스캔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구원사의 측면에서 볼 때 섭리는 윤리를 초월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죄를 덮어 주실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말은 유다의 끊어진 혈맥을 이은 공로자이며 구원사를 위하여 헌신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이다.

시사용어 Briefing

위 깃털 뽑기

무리하게 깃털 (세금) 을 뽑으면 거위 (국민) 는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급격하게 세율을 인상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하면 국민에게 독이 되니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

고슴도치 딜레마

추위를 견디기 위한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온기를 느끼기 위해 너무 가까이 달라붙으면 바늘에 찔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몸이 추워 얼어 죽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적당한 거리는 두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단위 변경)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바꾸는 것을 뜻하는 용어.

- 리디노미네이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지난 3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에서 "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한 이후부터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총재는 세 차례에 걸쳐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몸비

스마트폰 좀비 스마트폰을 보며 거리를 걷는 모습은 흡사 좀비를 보는 것 같다고 해서 생긴 용어. 최근 이동 중 스몸비 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정보공유합니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역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황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 이달의 교회소식

1. 중직자(남) 헌신예배 / 9월 1일 오후7:30
2. 등산대회 / 9월 9일 오전9시 출발
3. 1집사회 헌신예배 / 9월 15일 오후6:00
4. 찬양예배 / 9월 22일 오후6:00
5. 2집사회 헌신예배 / 9월 29일 오후7:30

◎ 공지사항

1. 9월 생활실천표어 / 자신의 담장을 뛰어 넘으라
2. 9월 신앙서적 /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제이슨 앨런’ 저
3. 특별새벽기도회 / 9월 2일~6일 오전5:00

◎ 이달의 교우소식

1. 백일감사예배 / 이경준아동 9월 23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중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